

# 서울 주보

제2608호  
2026년 4월 12일(가해)

부활 제2주일  
(하느님의 자비 주일)



## 입당송 | 1베드 2,2 참조

갓난아이처럼 영적이고 순수한 젖을 갈망하여라. 너희는 그 젖으로 자라나 구원을 얻으리라. 알렐루야.

## 제1독서 | 사도 2,42-47

## 화답송 | 시편 118(117),2-4,13-15 7L,22-24(◎ 1)

-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다.(또는 ◎ 알렐루야.)
-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아론의 집안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 나를 밀치고 밀쳐 쓰러뜨리려 해도, 주님은 나를 도와주셨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에게 구원이 되어 주셨네. 의인들의 천막에서 울려 퍼지는 기쁨과 구원의

## 환호 소리. ◎

-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

## 제2독서 | 1베드 1,3-9

## 복음환호송 | 요한 20,29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

## 복음 | 요한 20,19-31

## 영성체송 | 요한 20,27 참조

- 네 손을 넣어 못 자국을 확인해 보아라.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알렐루야.

# 주님의 자비, 상처와 상처가 맞닿는 자리



김원호 바오로 신부 | 등촌3동 주임신부

부활 제2주일 곧, 하느님의 자비 주일인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 자비하신 주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토마스는 하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주님을 뵈고 감격에 젖어 있을 때, 홀로 그 기쁨에서 소외된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왜 하필 나만 없을 때 오셨을까?' 하는 서운함과 오해는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요한 20.25)라는 한맺힌 절규로 변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불신이라기보다, 주님의 사랑을 직접 확인하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서는 다시 나타나시어 말씀하십니다. "네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20.27) 이 말씀은 토마스의 불신에 대한 질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아픔을 통해 그의 오해와 아픔을 치유하시려는 자비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상처 앞에서 토마스는 비로소 모든 오해를 씻고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20.28)이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예전에 안동교구 강구성당에서 사목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 토마스 사도를 주보성인으로 모시는 작은 시골 성당의 성전 문고리는 예수님의 깊은 상처를 만지고 있는 토마스의 손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그 문고리를 밀어 성전 문을 열고 제대를 차리며 신자분들을 맞이

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오늘 복음을 묵상하다 보니 예수님의 상처 위에 저의 손을 포개어 문을 열던 그 행위를 통해 이루어진 사랑하는 신자분들과의 만남은 주님의 자비를 매일같이 체험하는 순간이었음을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하느님의 자비는 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연민'이라는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그 완성은 우리의 상처 안으로 직접 들어오시는 '투신'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마음을 열 때, 멋지고 화려한 모습이 아닌 가장 아픈 곳을 먼저 내보이듯,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영광보다는 부서진 상처를 먼저 내어주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통을 알아주길 원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 아픔에 들어와 함께하고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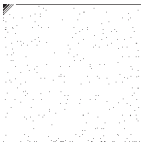
그런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누구의 상처에 손을 포개고 있느냐?" 주님께서서는 당신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투신'하길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러셨듯 나의 아픔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그리고 아파하는 이웃 앞에 내어놓고 서로의 상처가 맞닿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치유하고 치유받는 자비로운 경험을 하길 원하십니다. 그럴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을 "나의 자비이시며, 나의 하느님"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 그림 목상

진리를 찾아가는 여정 | 팩트체크의 전문가인 토마스가 만약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벽화를 보았다면, 왜 배꼽을 그렸냐고 물어왔겠지요? 탯줄 없이 창조된 아담에게 배꼽이라니... 진실은 우리의 논쟁거리이지만, 진실의 너머에 자리잡은 진리는 갈라진 우리를 다시 하나로 모아줄 것을 믿습니다. 진리로 가는 길이 여러 갈래일지라도, 결국 섭리의 품안으로 모여드는 더 큰 그림을 생각합니다

글·그림 하삼두 스테파노 | 작가





## 히말라야 하늘 위에서



최인아 마리아 |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1991년이니까 꽤 오래전 일입니다. 그해 가을, 저는 두 달간 인도 배낭여행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떠나는 해외여행을 인도로 간 거예요. 젊은 저를 잡아끄는 무엇인가가 그곳에 있었나 봅니다. 인도의 몇몇 도시를 홀로 다닌 저는 네팔에도 꼭 가고 싶었습니다. 히말라야의 품에 안기고 싶었어요. 사실, 이 여행엔 한 가지 전조가 있었습니다.

그해 1월 2일, 신년회를 마친 저희 팀은 함께 차를 마시며 새해 덕담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끝에 팀장님이 팀원들에게 새해 계획을 물었죠. “책을 많이 읽겠다.”, “운동을 하겠다.” 등 한 명씩 돌아가며 이야기했고 마침내 제 차례가 됐습니다. 제 입에선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올해 히말라야에 가겠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사람들은 “뭐라고?”, “어디를 간다고?” 다들 놀라워했지만 가장 놀란 사람은 저였습니다. 그 말을 하기 전까지 히말라야에 가겠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아니, 거기가 어디라고 감히 갈 생각을 하겠어요? 김영하 작가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의 어떤 순간에는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자기 운명에 대한 예언이 된다.” 저야말로 그랬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말을 하고서는 그해 가을 네팔 땅을 밟았으니까요. 비록 3,000미터에 불과했지만 히말라야의 품에 들어 며칠 트레킹도 했습니다.

인도 바라나시에서 네팔 카트만두까지 비행기로 40여분 걸린 것 같습니다. 그 절반의 시간 동안 비행기는 히말라야 위를 날았어요. 모든 승객이 창밖으로 엄청난 광경을 보느라 정신이 없었죠. 히말라야는 바다가 용기해 생긴 신생대 습곡산맥이라는 것을 저는 학교에서 배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늘 위로 높이 솟은 설산을 보는 순간 제겐 이런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이건 분명

신의 창조물이다. 바다가 솟아올라 만들어졌다는 설명은 너무 건조하고 빈약하다.” 말이 막히고 가슴이 뒤집어질 만큼의 감동을 느낀 순간 저는 창조주를 떠올렸습니다.

문득문득 어떻게 살고 어떤 존재로 살 것인지 생각합니다. 그때 제 안에 이런 생각이 고입니다. “나는 창조주의 피조물이고 싶다. 그분의 피조물에 걸맞게 살겠다.” 물론 현대 과학은 생명의 시작을 단백질의 합성과 세포의 분화로 설명한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럼에도 저는 그저 단백질 덩어리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창조주 하느님의 피조물이고 싶어요.

저는 저 높은 곳, 그분이 계시는 곳을 바라보며 다짐하곤 합니다. 그분께서 저를 만드실 때 가지셨을 뜻을 헤아리며 1센티라도 가까이 가려 애쓰겠다고요. 요즘 하늘은 미세먼지로 뒤덮여 있지만 뜻이야 어디 갈까요? 본디 높고 투명했을 하늘을 헤아리며 그분의 피조물에 값하기 위해 하루하루 애쓰고 있습니다. 애쓴 것은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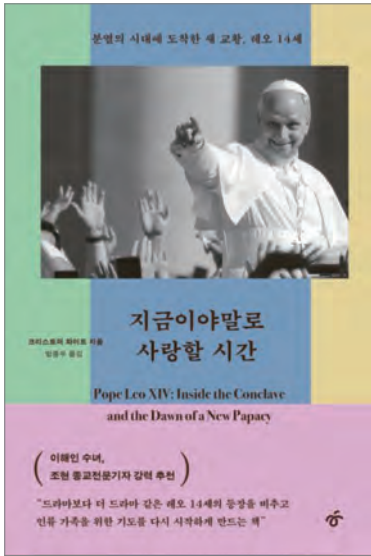
한컷 묵상

“평화가 너희와 함께!”  
(요한 20, 19)

하늘

허욱 토마스 모어 | 작가

**K톨릭: 도서** | 서울주보는 2026년을 맞아 K톨릭 특집을 선보입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 문화, 신앙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고유하게 빛어낸 빛나는 가치를 스스로 바라보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중 K톨릭 도서칼럼은 한국 교회만의 독특한 특징을 진단하고, 성찰을 이어갈 수 있는 도서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도서 | 《지금이야말로 사랑할 시간》·《교황 레오 14세》·《레오 14세 교황의 생각》

## 지금이야말로 사랑할 시간, 오히려 희망을 봅니다



한창현 모세 신부 | 성바오로수도회

한국 사회를 진단하는 최근의 조사와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략적으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의 지속 가능성 위기, 불평등으로 인한 경제적 양극화의 고착화, 그리고 정치적·이념적 갈등의 심화 이 세 가지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적합니다. 이 세 가지 차원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되면서 건강한 사회로의 복귀는 더욱 요원해지는 듯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톨릭교회는 레오 14세 교황님을 맞이하였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사랑할 시간》(크리스토퍼 화이트 지음, 한겨레출판)은 레오 14세 교황님이 선출되기까지 과정과 더불어, 교황님께서 교회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레오 14세 교황님은 선출 이후 추기경단과의 만남에서 자신이 레오 13세와 같은 길을 걷고자 ‘레오’라는 교황명을 택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선택은 앞으로 레오 14세 교황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교황직을 수행하고자 하는지 분명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19세기, 경제적·기술적 변화가 사회를 극단적으로 분열시키고 있을 때 레오 13세 교황님은 역사적 회칙 〈새로운 사태〉를 통해 당시의 시급한 문제들을 다루고, 세상이 향하는 것과 다른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극단적이었던 분열의 시기에 오히려 더 담대하게 세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신 선임 교황의 모습에서 레오

14세 교황님은 희망을 보았으리라 생각해봅니다.

한편 앞에서 소개한 책은 교황 선출 과정 안에서 드러난 교회 내 갈등을 있는 그대로 자세히 묘사합니다. 책을 읽는 내내 교회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이 과정을 모두 지켜보았던 레오 14세 교황님 역시 교회 안의 극단적 대립을 보면서 뒤로 물러서고 위축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레오 14세 교황님은 오히려 바로 그 분열의 자리에서 우리 교회가 집중해야 할 바를 분명히 보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윤긴이 방종우 신부님은 삶의 진정한 가치와 평화는 적대적 감정이나 전쟁과 같은 분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에 집중할 때 가능함을 강조합니다. 이어서 사랑으로 인류가 일치를 이루어 나갈 때,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할 것이라 보았습니다. 레오 14세를 맞이한 우리 교회가 이러한 사랑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할 때, 한국 사회가 처한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이자 새로운 시작을 밝히는 빛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레오 14세 교황님의 삶과 사목 철학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도와주는 책으로 《교황 레오 14세》(도메니코 아가소 지음, 가톨릭출판사)을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레오 14세 교황의 생각》(슈테판 폰 켐피스 지음, 분도출판사)을 통해 교황님의 삶과 그에 따른 가치관을 아울러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 왜 성경에 공룡이 나오지 않는지



방종우 야고보 신부 |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윤리신학 교수

본당에서 소임을 하던 중, 한 초등학교 친구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신부님, 왜 성경에 공룡이 나오지 않아요?” 사랑스럽고 귀여운 질문이었지만 이를 어떻게 쉽게 설명하면 좋을까 망설였던 기억이 납니다. 이 질문 하나에는 생각해 볼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자연과학은 진화론을 통해 생명의 발전 과정을 설명하지만, 성경은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동물들의 경우,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전제로 서술됩니다. 이에 근본주의 개신교 교파는 창세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진화론 자체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생명체를 즉각적으로 창조하셨으므로 애초에 진화 과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톨릭교회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교회는 신앙과 과학 사이에 근본적인 대립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진화론 자체를 거부하지 않으며, 오히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안에서 생명이 발전해 왔음을 강조합니다. 즉, 진화는 각 존재에 대한 하느님의 창조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를 흔히 우리는 ‘유신 진화론’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교회는 인간의 영혼은 물질적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직접 창조하셨다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도대체 창세기는 왜 이러한 진화 과정이나 공룡과 같은 고대 생물을 묘사

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성경이 과학 교과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는 우주의 물리적 생성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이고 상징적인 언어로 창조의 진리를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6일간의 창조는 하느님의 시간표가 아니라 창조 세계의 질서를 표현합니다. 인간이 흙에서 창조되었다는 묘사는 생물학적 설명이 아니라 인간이 피조물이며 동시에 하느님의 숨을 받은 존재임을 나타냅니다. 그리하여 비오 12세 교황님은 회칙 〈인류(Humani Generis)〉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의 초반부 1-11장은, 현대의 역사 서술 방식과 동일하지 않다. 그러나 진리를 전달하는 고유한 방식을 가진다.” 결국 과학은 생명이 ‘어떻게’ 발전했는가에 대한 자연적 차원을 논의하는 한편, 신학은 인간이 ‘왜’ 존재하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궁극적 차원을 탐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자연과학과 신학의 두 방식은 다른 차원에서 동일한 진리이신 창조주 하느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과학 기술 연구를 높이 평가합니다. 실제로 과학 연구는 가장 위대한 것과 가장 미미한 것을 탐구함으로써, 우주의 모든 부분에 반영되어 있는 하느님의 영광에 기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리(신앙)는 진리(자연과학)와 모순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 바티칸 리포트! 전 세계가 함께 준비하는 2027 서울 WYD

2026년 3월 3일(화)-6일(금)



2027 서울 WYD 조직위원회는 교황청과 전략 회의 및 전 세계 사목자 대상 온라인 킥오프 미팅을 하기 위해 3월 3일부터 6일까지 바티칸을 방문했습니다. 3월 3일 교황청 평신도가정생명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략 회의에서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님과 이경상 바오로 주교

님은 2027 서울 WYD의 준비 현황을 교황청과 공유하셨습니다. 발표를 들은 교황청 평신도가정생명부 장관 케빈 패럴 추기경님은 “편견이 적은 젊은이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모습 자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라며, 한국의 따뜻한 현대 문화가 대회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3월 5일 열린 온라인 킥오프 미팅에는 전 세계 250여 명의 청소년 담당 사목

자가 참여했습니다. 정순택 대주교님은 ‘만남, 사목, 순례, 선교’를 4대 핵심 가치로 제시하며, 젊은이들이 단순한 관광객이 아닌 삶을 새롭게 하는 ‘순례자’로서 서울을 찾아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조직위원회는 한국 교회의 순교 영성과 한국 문화를 접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참가 패키지를 9종으로 간소화하며 기부금 인상 폭을 10%로 최소화하는 등 현실적인 배려가 담긴 준비 현황도 공유했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조직위원회는 교황청과 긴밀한 정책 공조를 재확인하고, 각국 사목자들에게 비자 및 등록 절차 안내를 조기에 제공하는 등 해외 순례자 모집을 위한 실질적인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 신앙과 과학의 관계는? 제4회 WYD 슈퍼클래스

2026년 3월 7일(토)

지난 3월 7일, 명동대성당 고스트홀에서 제4회 WYD 슈퍼클래스가 열렸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신학과 교수 조동원 안토니오 신부님께서 <신앙과 과학의 충돌? vs 조화?>를 주제로 하신 강의였습니다. 강의 전반부에서 신부님은 자신의 삶의 여정을 진솔하게 나누며, 과학이 신앙과 대립하는 영역이 아니라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또 하나의 길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하셨습니다. 후

반부에는 퀴즈와 사전 질문, 현장 질문을 통해 참가자들과 활발한 소통도 이루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한 참가자는 “과학과 신앙 사이에서 막연하게만 품어왔던 의문들을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었다.”며, ‘과학은 신앙 안에 포함되고, 신앙은 그 이상의 인식의 빛을 지닌다.’는 말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 다른 참가자

는 한때 과학주의적 사고로 신앙을 멀리했던 시절을 고백하면서, 우연히 미사에 참여하고 말씀을 접하면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지금은 청년회 활동까지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2027 서울 WYD가 저처럼 성당을 떠났던 청년들이 다시 하느님 품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목주기도 10억단 바치기

목주기도 봉헌 운동  
**782일째**  
(2024-02-11부터)

실시간 봉헌 현황  
**377,814,854단**  
(달성률 37.78%)

자세한 내용은



초대교회사람들 | '한국 교회와 우리 문화 돌아보기'를 올해의 주제로 삼은 서울주보의 새로운 코너 '초대교회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순교자나 성인뿐만 아니라, 초대 한국 교회와 함께했던 다양한 신앙인들의 모습을 조명하는 코너입니다. K톨릭의 토대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느껴보세요!

## 손경윤, 손경옥 형제



정민 베르나르도 | 한양대학교 국문과 명예교수

신유박해 당시 각각 참수형과 유배형에 처해진 손경윤, 손경옥 형제의 본명은 제르바시오와 프로타시오입니다. 제르바시오와 프로타시오 두 성인은 《성년광익(聖年廣益)》에 6월 19일의 주보 성인으로 전기가 올라 있습니다. 밀라노의 순교자 부부 성 비탈리스(Vitalis)와 성녀 발레리아(Valeria)의 쌍둥이 아들로, 서기 96년에 신앙을 지켜 순교하였습니다. 두 성인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전 재산을 썼고, 자신들은 아주 작은 집에 살면서 10년간 주를 섬기고 묵상하며 살다가, 끝에 낚을 매단 혹독한 채찍질 끝에 참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손경윤, 손경옥 형제는 1790년에 최필공을 통해 입교하여 세례명을 받았습니다. 혹시 형제가 부유한데다 쌍둥이여서 이 세례명을 받았던 걸까요? 아니면 그들의 생일이 6월 19일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필 치명 순교자 형제의 이름을 두 사람에게 나란히 지어준 것이 눈길을 끕니다.

손경윤 형제는 1791년 진산 사건 직후 자수했다가 배교를 다짐하고 석방되었습니다. 1796년 주문모 신부 실포 사건 때도 형조에 붙잡혀 들어가 독한 형벌을 당하고 배교의 뜻을 둘러대어 다시 석방되었습니다. 두 번 다 어머니와 아내 및 자식까지 잡혀간 사실에 놀라 자수한 것입니다.

손경윤의 집은 안국동에 있었고, 그는 엄청나게 큰 집을 한 채 사서 술집을 운영했습니다. 바깥채는 술 손님으로 늘 시끌벅적했는데, 그 소란스러움을 이용해서

안채에서 몰래 교우들을 모아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아우 손경옥도 지금의 서대문구 현저동 모화관(慕華館) 인근에 큰 약국을 열어, 교회의 한 거점이 되었습니다. 《사학징의》에는 황일광이 정동의 술 파는 집 행랑채에서 빨감을 팔며 살았다는 진술이 보입니다. 당시 술집이나 약국으로 위장해서 교회의 본거지로 삼는 것은 이른바 도심 속 교회의 허허실실 작전이었던 셈입니다.

1801년 신유박해 당시 회장으로 활동했던 손경윤은 41세 때인 1801년 12월 26일에 서소문 밖에서 이경도, 김계완, 홍익만 등과 함께 참수형에 처해져서 이름값을 했습니다. 아우 손경옥 프로타시오는 12월에 유배형에 처해져서 울산으로 끌려 갔습니다. 그의 뒷 소식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들 형제는 황사영과 특별히 가까웠기에 더욱 끔찍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이들 형제가 1791년과 1796년에 거듭 배교했던 것은 죽음이 두려워서이기 보다는 가족을 지키고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역할이 컸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술집과 약국을 거점 삼아 교리 교육과 포교 활동의 근거지로 삼았고, 자신의 재력을 아낌없이 쏟아부어 교회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다블뤼 주교는 《조선순교사비망기》에서 손경윤에 대해 “회장직에 임명되면서 그는 아주 성실하게 자신의 직분에 전념하였고, 사람들은 아직도 그의 열성과 헌신에 대해서 말을 할 정도이다.”라고 썼습니다. 제르바시오와 프로타시오 형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오늘(4월 12일)은 '하느님의 자비 주일'입니다

[ 서울주보 알림 게재 신청 안내 ]

-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에서만 받습니다.
- 서울주보 게재 신청은 교회기관·수도회이거나, 서울대학교 사회사목국·서울대학교 사목국에 등록된 단체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96년 4월 19일 신인균 요셉 신부(91세)
- 2003년 4월 18일 한희동 그레고리오 신부(68세)
- 2024년 4월 14일 이흥근 스테파노 신부(67세)
- 2024년 4월 16일 김형식 베드로 신부(90세)

교구청 알림

**가톨릭영성심리상담소** / 문의: 02)776-8405  
 홍성남 신부(소장)의 영성심리특강 및 미사  
 때, 곳: 4월 18일(토) 15시부터, 가톨릭회관 1층

**자연과 함께하는 '사제, 수도자' 피정 안내**  
 때, 곳: 7월 27일~8월 5일, 제주도 엠마오연수원  
 피정지도: 이영근 신부 / 문의: 010-6462-0410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엠마오 연수원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CCM 생활성가 코드 반주법**  
 때: 5월 4일~6월 29일 매주(월) 19시~21시  
 곳: 중림동 최양업홀 / 문의: 02)393-2213~5  
 등록기간: 4월 13일(월)~29일(수)까지 / 강사: 김상균 교수

**'슬픔 속 희망찾기' 4월 유가족 미사 및 특강 안내**  
 대상: 자살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모든 분들  
 때, 곳: 4월 18일(토) 오전 10시, 명동대성당 프스트홀 2층 소성당 / 특강: 이별은 끝나도 애도는 계속된다  
 문의: 02)318-3079 한마음헌몸자살예방센터

**서울대학교 생명위원회 프로그램: 혼인갱신 강좌 및 갱신식**  
 대상: 혼인갱신을 원하는 부부 / 문의: 02)727-2353  
 때, 곳: 4월 30일~5월 21일 매주(목) 19시~21시  
 강의방식: 첫째주~셋째주(온라인 zoom), 넷째주(혼인갱신식) / 신청방법: 생명위원회 홈페이지 신청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심상무 개인전: 1전시실  
 김현진 개인전: 2전시실  
 이현주 개인전: 3전시실  
 전시일정: 4월 17일(금)~26일(주일)

**사목위원 양성연수(온라인)**  
 대상: 본당 사목위원(회장단 포함)  
 주제: 3050 신자와 함께 걷기-잃어버린 양을 찾는 사목위원 / 교육방식: 온라인 교육(수강방법 추후 안내)  
 때: 5월 13일~6월 30일 / 회비: 1만원(5월 6일 접수 마감)  
 본당 사무실에서 교구 양업 시스템으로 접수  
 문의: 02)727-2063 사목국 교육지원팀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영성심리아카데미**  
 신청: 홈페이지(<http://seoultpc.catholic.or.kr>)-교육신청  
 문의: 02)727-2126  
 1) 영성심리아카데미  
 교육명: 자존감 되찾기(문종원 신부),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마음근력 키우기(윤제연, WYD 준비를 위한 이탈리아어 배우기(류점마), 비단에 그리는 공필화(김현정)  
 2) <성경순례> 저자와 함께하는 사도행전 - 성령으로 활동하는 공동체(허영섭 신부)  
 때, 곳: 4월 19일(주일) · 4월 26일(주일) · 5월 3일(주일) 오후 2시~4시, 가톨릭회관

2026 신규약 성경통독 회원 모집

강의: 조창수 신부 / 내용: 신규약 성경 전체(1년 강의) 때, 곳: 매주(월) 13시~16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명동) (온라인 라이브 동시 강의 / 재방송 1개월 수강 가능)  
 2027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성지 순례 피정: 3월 9일~23일(피정지도: 조창수 신부)  
 문의(신청): 010-8889-5425(문재) 가톨릭 성경영성 아카데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신하 서울가톨릭여성복지협의회 세미나**  
 취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설립 50주년 기념 여성복지분야 세미나  
 때, 곳: 4월 28일(화) 14시~16시30분, 가톨릭회관 1층 강당  
 주제: 생명을 돌보는 여성들(힘과 위엄이 그 아내의 옷, 앞날을 흐뭇하게 바라보다. 잠언 31:25) / 내용: 기초강연(폭력에 노출된 여성들에 대한 성경적 돌봄의 유형: 연대, 정의, 그리고 회복, 김영선 수녀), 종합토론, 질의 응답  
 문의: 010-4350-1601 서울가톨릭여성복지협의회

민족화해위원회

- 1) 2026년 평화니눔 청년 및 연구자 논문 공모 사업  
 2027 서울 WYD를 앞두고 가톨릭교회의 평화 사상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을 고취하고자 논문을 공모합니다 /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주제: 무기를 내려놓으며, 무기를 내려놓게 하는 평화  
 대상: 만 40세 이하 청년 및 신진 연구자  
 접수: 3월 16일(월)~4월 17일(금) 18시까지  
 시상: 총 12편(최우수상 연구자 500만원, 청년 일반 300만원 등) / 제출 방법: 이메일(hmpjournal@seoul.catholic.kr) 접수 자세한 내용은 평화니눔연구소 홈페이지(sharepeace.net) 참조
- 2) 1508차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때, 곳: 4월 14일(화) 19시, 명동대성당 / 문의: 02)727-2420  
 금주의 '내 마음의 복녘분당' : 함흥교구 회령 분당

환경사목위원회

- 문의: 02)727-2278, 2283 환경사목위원회
- 1) 제85차 피조물 보호를 위한 미사  
 때, 곳: 4월 16일(목) 11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명동)  
 대상: 기후위기와 생태환경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과 후원회원 / 주례: 임현호 신부(환경사목위원회 부위원장)  
 강론: 이재돈 신부(환경사목위원회 위원장)
  - 2) 제60회 가톨릭 에코포럼  
 대상: 환경문제에 관심 있는 신자, 신학생, 수도자, 성직자 / 주제: 4대강, 그 실상과 지향  
 신청: 홈페이지(<http://eco.catholic.or.kr>)  
 때, 곳: 4월 22일(수) 19시~21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명동)  
 강사: 최승호 PD,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부위원장
  - 3) 지구의 날 소등 행사  
 때: 4월 22일(수) 20시~20시10분  
 곳: 가정 · 분당 · 각단체 및 기관  
 내용: 각 분당 및 모든 신자분께서는 해당 시간 동안 전등 소등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작은 실천이 모여 공동의 집 지구를 돌보는 큰 사랑이 됩니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YD) 행사: 제5회 수퍼클래스 북토크

주제: 소설가 최은영과의 대화 "소설읽기, 정직하게 나를 대면하는 시간" / 문의: 02)2230-2050  
 때, 곳: 5월 9일(토) 16시~18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프스트홀 / 신청: WYD공식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직장사목팀 소방사목 안내

- 1) 가톨릭 소방공무원 <자기돌봄을 위한 1일 피정>
  - 2) 큰사랑 봉사회 회원 모집
- 대상: 기도 생활과 봉사에 관심 있는 분  
 문의(접수): 02)727-2081 큰사랑봉사회 총무

명동대성당 도슨트 프로그램 5월 접수

투어기간: 5월 1일~31일  
 시간: (수) 14시 / (토) 10시40분 / (토) 16시30분  
 신청방법: 홈페이지(cc.catholic.or.kr/docent) 접속 후 신청 / 신청일: 4월 20일 10시 오픈  
 문의: 02)751-4104 홍보위원회

가톨릭 교육자의 날

신앙인 학교 교사들이 함께 기도와 친교를 나누며 위로받는 시간 / 대상: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 교직원 중 가톨릭 신자라면 누구나  
 때: 4월 25일(토) 오전 9시~오후 4시(특강-나눔-미사)  
 곳: 동성중 · 고등학교(혜화) / 회비: 3만원  
 신청: 온라인신청서(<https://kycs.or.kr>/팝업 참조)  
 문의: 02)566-5456, 02)553-7322 학교사목부

2026 가톨릭 50+ 학교 교육생 모집

대상: 50세 이상의 가톨릭 신자 / 곳: 교구청별관 523호  
 1) 노르딕 걷기학교 기초반  
 내용: 건강을 위한 바른 걸음법, 노르딕 워킹  
 때: 1차 4월 20일(월)~5월 18일(월) 10시30분~12시(총 4주) · 2차 6월 1일(월)~22일(월) 13시30분~15시(총 4주)  
 1차 · 2차 교육내용 동일 / 회비: 6만원

2) 성경 봉독학교  
 내용: 전례 독서 및 성경 봉독, 스피치 교육 / 회비: 8만원  
 때: 5월 12일(화)~6월 16일(화) 14시~15시30분(총 6주)  
 신청기간: 개강일 1주 전까지 선착순 접수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문의: 02)727-2385, 6  
 신청방법: 노인사목팀 홈페이지 교육신청 게시판 접수  
 자세한 내용은 노인사목팀 홈페이지 참조

(2026/봄) 천주교 서울대학교 문화학교

문의: 02)727-2047  
 문화학교 홈페이지(<http://culture.catholic.or.kr>) 접수

코베는 손뜨개 재래모 만들기	4월 13일~5월 18일 매주(화) 14시~16시
커피가 익미의 음료라고?	4월 14일~5월 19일 매주(화) 14시~16시
파스텔 감성, 가톨릭 초코아트	4월 14일~5월 19일 매주(화) 19시~21시
감성을 담은 가톨릭 태블릿 일러스트	4월 15일~5월 13일 매주(수) 15시~17시
신앙, 인문학을 만나다	4월 16일~5월 14일 매주(목) 19시30분~21시
레전드로 세계명품 커피 및 소품 만들기(월데이)	5월 26일(매주) 19시~21시(재학생)
편지니들로 물고기 매트 만들기	6월 4일~11일 매주(목) 14시~16시



**인준단체 알림**

**모임**

**ICPE 청년 피정-하느님의 선물인 내 몸**

때, 곳: 4월 12일·19일·25일·26일, ICPE합정센터  
문의: 010-2804-6523 / 카카오톡 플친: ICPE

**11강남지구 성령기도회** / 문의: 010-2203-3053

때: 매주(금) 19시~21시50분 / 치유기도회  
곳: 역삼동성당 경환당(주차 가능) / 김동주

**4월 '잠시멈춤' 청년 기도모임(착한목자수녀회)**

대상: 남녀 청년 15명 / 문의: 010-9695-1366  
때, 곳: 4월 16일(목) 19시30분, 영성센터(명동) B401호

**7지구 성령기도회 부활 대피정** / 문의: 010-6290-1639

지도: 김재덕 신부 / 미사, 강의, 안수  
때, 곳: 4월 15일(수) 12시30분~17시, 이문동성당 대성전

**예수 전교회 치유 대피정**

때: 4월 18일(토) 오후 1시~5시(4시 토요일전미사)  
곳: 가톨릭회관 7층 강당 / 강사: 장영숙  
담당: 김인성 신부 / 문의: 010-5223-7339

**2026년 DMZ 평화의 길(도보 순례)**

대상: 초3 이상 누구나(80명) / 회비: 8만원  
때: 1박 5일 2일(토)~3일(주일) / www.pu2046.kr  
문의: 031)941-2766 의정부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청년 해외 성지순례(이태리 로마·아시시 등)**

대상: 미혼 남녀 청년 신자 / 문의: 010-5715-1702  
때: 7월 18일(토)~29일(수) / 7월 30일 도착  
주최: 아씨시의 프란치스코 선교 수녀회

**수도원 1박2일 체험 피정** / 문의: 010-9816-0072

대상: 꿈을 찾는 33세 미만 미혼 여성  
때: 5월 23일(토) 18시~24일(주일) / 예약 필수  
곳: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주최, 전철 4호선 미아역)

**3지구 매월 셋째(주) 무료 치유 피정** / 문의: 010-2435-3373

때, 곳: 4월 18일(토) 11시~16시, 갈현동성당 지하강당  
말씀치유기도·찬양·미사·안수(점심 무료 제공)  
강사: 손동훈 신부(인천 장애인복지관장)

**성 이나시오 영신수련 피정**

피정 동반: 김우선 신부(예수회)  
때: 6월 18일(목) 17시~21일(주일) 15시  
곳: 제주 성 이시돌 피정의 집 / 회비: 30만원  
문의(접수): 064)739-0951 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피아골 성지순례** / 문의: 010-3712-8119

피아골 피정	7월 17일~19일, 7월 24일~26일, 9월 18일~19일
수도원순례	4월 21일~24일   홍도·흑산도   5월 6일~9일
홍성남신부	북해도 8월 24일~27일, 고토 9월 7일~11일

**성 베네딕도회 성경통독 8일 단식 피정**

제146차	4월 17일(금)~25일(토)	곳: 화순 수도원(주최) 문의: 061)373-3001
제147차	5월 15일(금)~23일(토)	
제148차	6월 12일(금)~20일(토)	

**예수수도회 영성센터 프로그램**

곳: 전철 1·7호선 온수역 10분 거리 / 010-6890-7223

엄마와 딸(미혼) 피정	5월 2일(토)~3일(주일)
영신수련 2박3일 침묵 피정	5월 29일~31일, 7월 10일~12일
세월의 지혜와 영성 피정(65세 이상)	5월 12일~21일
품그리기(자녀사별 프로그램 10주간)	상시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도미니코 수도회)**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때, 곳: 4월 17일~20일·5월 15일~18일·6월 19일  
~22일·7월 17일~20일, 성 도미니코 수도원(수유동)  
회비: 36만원(효소비 포함) / 문의: 010-9363-7784

**2026년 꽃동네 수도자와 함께하는 성소주일 '찾아라'**

때: 4월 26일(주일) 10시~16시, 음성 꽃동네 사랑의 연수원(점심도시락 지참) / 대상: 유치부~일반부  
단체접수 마감: 4월 20일까지 전화 접수  
문의: 010-5571-2516 형제회, 010-9894-1973 자매회

**부부 날들이 피정(서울대교구 가정선교회)**

강사: 홍성남 신부, 한철호 신부, 이현주 회장, 이성호 박사, 이요셉 소장, 김미희 강사  
회비: 20만원(1부부당 / 비신자 참여 가능)  
때, 곳: 5월 9일(토) 14시~10일(주일) 17시, 아론의 집  
계좌: 신협 131-022-652844 가정선교회(입금 연락)  
문의: 0505-091-0523, 02)777-1773

**2026년 마리아 사제운동 평신도 체나콜로 대피정**

주제: "희망에 너희 마음을 열리라"(예시지 604번)  
미사: 마리아사제운동 사제단  
강의: 오창수 신부(전국 체나콜로 부대표 사제)  
때, 곳: 5월 5일(화) 오전 9시30분~오후 5시, 동성고등학교 대강당(해화동) / 문의: 010-7142-0513  
주최: 천주교 서울대교구 마리아사제운동(M.S.M)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광활한 초원 성이시돌 목장에서 쉽고 함께  
제주의 봄 여행과 한라산, 올레길, 성지순례  
대상: 개인, 가족, 본당구반장, 소규모 모임  
때: 한라산 철쭉-자연순례 5월 8일~10일·5월 11일~13일  
·5월 12일~14일·5월 21일~23일·5월 23일~25일·5월 28일~30일(성모의 밤)·6월 5일~7일·6월 13일~15일·6월 20일~22일, 추자도 포함 성지순례 5월 16일~19일·5월 31일~6월 3일 / 064)796-4182, 02)773-1455 제주자연피정

**제주 산들 평화 순례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제주 성지와 푸른 숲과 바다 그리고 올레길 순례  
대상: 개인 및 각 본당 단체에 맞는 프로그램 진행  
때: 제주 순례 5월 15일~17일·6월 19일~21일·7월 3일~5일·7월 10일~12일·7월 17일~19일·8월 21일~23일, 우도 7월 24일~26일·8월 7일~9일, 추자도 성지순례 5월 4일~6일·6월 4일~7일·6월 8일~11일·9월 4일~7일·9월 11일~14일·10월 31일~11월 3일·11월 14일~17일 / 문의: 064)732-4702 변형의 집

**예수고난회 서울 명상의 집 피정** / 문의: 02)990-1004

개방의 날	매일 첫번째(제) 5월 1일 10시~15시30분
성경 피정(시편 아가사)	4월 24일(금)~26일(주일)
치유침묵기도 피정	5월 29일(금)~31일(주일)
수요개방미사	매주(수) 15시, 300주년 기념 경당 단체 피정(자체·위탁) / 개인 피정 가능

**서울대교구 성령쇄신봉사회 기도회**

곳: 전철 2호선 신림역 5번 출구, 버스 환승 500·504·6512·5535 천주교성령봉사회관 차차 / 02)867-7900

주일기도회	(주일) 13시20분~17시	미사: 16시
월요일기도회	(월) 18시30분~22시	미사: 21시
치유기도회	(수) 13시~17시	미사: 16시
로사리오기도회	(목) 13시~17시	미사: 16시
철야기도회	(금) 18시~22시	미사: 21시
생명축복기도회	(토) 14시30분~19시30분	미사: 18시
청년(루하)기도회	(금) 19시30분~21시30분	미사: 20시30분

**성경 안에서 치유 대피정(지혜의 샘)**

강사: 송봉모 신부(강의), 이상희 신부(미사·안수), 한영입 회장  
문의: 032)343-1871, 010-3248-9705  
때, 곳: 4월 13일(월) 10시~17시, 인천교구 지혜의샘(부천시 경인로61-1, 중동역 5분거리) / 점심 무료 제공

**교육**

**어른 초등학교·중학교 학생 모집(한국여성생활연구원)**

교육청 학력인정 초등학교·중학교 과정 / 02)727-2471

**한국외방선교수녀회 Zoom 성경통독**

때: 화요일, 목요일 20시~21시  
대상: 20세~40세 미혼 여성 / 문의: 010-9353-1773

**성가발성 노래교실** / 문의: 010-9842-8818

'다함께 성가를 TV' 이호중 교수 직강  
곳: 시스피나 음악원(주최 / 신촌·서초)

**서강대학교 '슬기로운 영성생활'**

주제: 성경과 영성 / 강사: 송봉모 신부(예수회)  
때: 4월 20일(월) 14시~16시(강의·미사) / 무료  
곳: 서강대학교 이나시오 소강당 / 문의: 02)705-4711

**말씀학교 무료 강좌(성바오로수도회 영성센터)**

거룩한 예수님 수의와 함께하는 마르코복음 / 미사 포함  
때, 곳: 매주(목) 10시~12시30분, 성바오로수도회(강북구 송중동) / 문의: 010-6287-9753 김길수 수사

**음악심리 상담사 자격 초급반**

때: 4월 29일~5월 13일 매주(수) 13시30분~16시30분  
곳: 한국음악치료연구소(전철 3호선 대청역)  
회비: 15만원 / 문의: 010-6655-1165  
주최: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

**병자들을 위한 꽃동네 치유세미나**

내용: 미사, 강의, 면담, 고해성사, 치유예절과 안수  
대상: 모든 병자와 간호하는 가족들  
때: 4월 17일(금) 11시~18일(토) 16시  
곳: 음성꽃동네 사랑의 영성원 / 회비: 9만원  
문의: 010-5490-5345 꽃동네 기도회

**성서인문학-철학이 묻고, 신학이 답하다**

때: 5월 19일·6월 9일·7월 7일·8월 4일·9월 22일·10월 6일·11월 17일·12월 1일(화) 10시~14시30분(총 8회기)  
곳: 명동 / 강사: 김병수 신부(한국외방선교회)  
문의: 02)726-0700(www.jiscen.or.kr) 전진상영성센터

**여의도성모병원 일반인을 위한 호스피스 교육**

때, 곳: 5월 7일(목)~8일(금) 9시30분~18시, 여의도성모병원 본관 4층 강당 / 문의: 02)3779-1804, 5월 30일(목)까지 선착순 00명 접수  
회비: 5만원·현장접수 6만원  
계좌: 우리 832-04-100745 가톨릭대학교여의도성모병원 / 등록 후 취소 불가, 주차 불가  
카카오톡채널: 여의도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그리스도교 영성 배우기**

내용: 1. 소통하는 신앙인, 2. 불편함의 영성  
곳: 왜관수도원 문화영성센터(주최) / 계좌: iM뱅크 504-10-102896-6 (재)왜관성베네딕도수도원  
접수 후 입금 / 문의: 010-6791-0071 (문자)

1차	5월 6일(수) 15시~7일(목) 13시	회비: 12만원
2차	5월 27일(수) 15시~28일(목) 13시	

**가톨릭스테인드글라스회 회원 모집** / 문의: 02)324-0852  
 천통 스테인드글라스 교육 / lukeglass.com 참조

**모집**

**재속 맨발 가르멜회 서울 십자가의 성 요한 화원 모집**  
 대상: 침묵과 고독 안에서 하느님의 얼굴을 찾  
 고자 하는 이 / 문의: 010-9836-8998

**수아비스 합창단원 모집**

분야: 테너, 베이스 / 활동: 제11회 정기연주회,  
 성지미사 봉헌, 연주봉사(복지기관)  
 연습: (월) 19시30분~21시30분, 공간음악(전철 7  
 호선 장승배기) / 문의: 010-7151-9831

**아쿠아스 합창단 단원 모집**

아쿠아스 합창단 2027년 60주년 기념음악회를 함  
 께할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 대상: 55세 이하 성  
 음악합창경력자(전 파트 약간명 / 테너·베이스 우대)  
 연습: 매주(토) 15시, 명동대성당 영성센터  
 활동: 월1회(넷째주 토) 성음악미사봉헌, 봄·가을  
 정기연주회 / 문의: 010-5397-7387

**미사**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 문의: 02)3673-2525  
 때, 곳: 4월 16일(목) 오전 10시, 사당5동성당

**국악인을 위한 국악 미사(우리맥소리)**

때: 매주(주일) 오후 6시 / 소리, 연주 참여 가능  
 곳: 독립문 무악동 선교본당 / 문의: 010-2949-1362

**새천년복음화학교 4월 후원회 월례 미사**

미사: 조성풍 신부 / 문의: 02)753-8765  
 때, 곳: 4월 16일(목) 낮 12시, 문화관 2층 소성당

**글라셋선교수도회 서울후원회 월례 미사**

때, 곳: 4월 20일(월) 11시, 글라셋선교수도회 본  
 원(성북동) / 문의: 02)743-7026, 010-7764-6031

**예수성심선교수도회 후원회 미사**

때: 4월 17일(금) 11시~14시 / 접수 필수  
 곳: 본원 성당(전철 3호선 지축역 10분)  
 문의: 02)379-8091, 010-6311-8071

**성바오로수도회 협력자 월례 미사**

대상: 협력자 회원, 개인 누구나 참여 가능  
 때, 곳: 5월 4일(월)~6일(수) 11시, 본원(미아동)  
 문의: 010-8684-1360

**정진석 추기경 선종 5주기 추모미사**

때, 곳: 4월 25일(토) 오전 11시, 천주교용인추모  
 공원 성당 / 주례: 염수정 추기경  
 문의: 02)727-2150 정진석 추기경 선교후원회

**천주교서울국제선교회 월례 미사** / 문의: 02)749-4596

중남미 해외선교와 사제양성을 위한 후원미사입니다  
 때: 4월 27일(월) 14시 / 집전: 송영호 신부  
 곳: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월례미사·성지순례**

때: 4월 20일(월) 오전 9시 출발(명동 가톨릭회관)  
 곳: 인제 성당(주일 미사) / 회비: 5만원(점심, 간식 제공)  
 입금 계좌: 794001-04-122952 국민은행(사랑이피  
 는기도모임) / 문의: 02)6253-3373, 010-8360-3700

**안내**

**남대문성당 '우리물터' 심리상담**

심리, 정서(우울·불안), 가족, 개인상담  
 상담: 매주(목) 11시~16시 / 문의(예약): 010-5582-3562

**바보의나눔 '추모·유산기부' 캠페인**

고인을 위한 추모기부는 사랑을 남기고, 유산  
 기부의 약속은 나눔으로 전해집니다  
 기부 문의: 02)727-2507

**자비주일 행사(서울대학교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내용: 찬미와 묵상이 있는 자비주일(고해성사·미사)  
 때, 곳: 4월 12일(주일) 13시~16시, 가톨릭회관 7층  
 문의: 02)756-3473, 010-2565-3473

**정신분석심리상담센터 IPC(마리아의 작은 자매회)**

대상: 심리적, 정신적, 영적인 고통으로 전문적  
 인 심리상담치료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  
 곳: 강남, 장충동 / 문의: 010-9139-1937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블자비의수녀회)

**천주교 서울대학교 카프성모병원**

알코올 사용장애 및 4대 중독 치료병원(입원 및 외래)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곳: 고양시 전철 3호선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www.karf.co.kr)

**볼길 심리상담연구소(마리스타 교육수사회)**

전문상담: 청소년, 개인, 가족, 단기부부상담 / 첫회 무료  
 곳: 합정 / 문의(예약): 010-8981-8356 (전화상담 가능)

**진애인 심리상담센터** / 문의: 02)587-9207

전문 심리 치료	불안, 우울, 분노, 공황장애, 강박적 행동, 가족 갈등, 대인기피 등
분노와 관계상처의 치유와 성장	4월 22일~7월 1일 매주 (수) 14시~16시(총10주)
관계 안에서 나를 돌보기 집단상담 '가까움과 거리 사이'	4월 29일~5월 27일 매주 (수) 14시~16시(총5주)

**유관단체 알림**

**베리타스심리상담센터** / 문의: 02)776-7726

개인심리상담 및 모래놀이치료	가톨릭회관 501호(명동) / 심리치유가 필 요한 아동·성인·부부·노인 성격심리검사
교육	가족상담사급 평일반 (월) 4월 20일~6월 15일 (8주)·주말반 (토) 4월 18일~6월 13일 10시~12시 (8주), 미술심리상담사 (화) 4월 21일~6월 2일 10 시~15시(6주) / 문의: 010-8750-5468 (문자)

**직원모집**

**가톨릭신문사 신입·경력 직원 모집**

분야: 취재기자, 신문 홍보 광고 / 4월 21일(화)까지 접수  
 홈페이지(http://office.catholictimes.org) 참조

**(사)한국카리타스협회 직원 모집**

분야: 국내 사회복지 1명(사회복지사 자격증, 실무  
 경력자 우대) / 홈페이지(www.caritas.or.kr) 참조  
 5월 4일(월) 18시까지 서류 접수(ckna@caritas.or.kr)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계약직 직원 모집**

분야: 영상 홍보, 번역, 행정 사무(정규직 전환 가능)  
 서류: 주교회의 홈페이지-알림마당-소식 참조  
 4월 30일(목) 14시까지 서류 접수  
 이메일(man0@cckc.kr) 문의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 직원 모집**

분야: 기부후원, 커뮤니케이션부, 순례자부, 봉  
 사자부, 행사총괄, 운영총괄부 등 / 모집기간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채용공고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wydseoul.org  
 이메일(recruit@wydseoul.org) 문의·접수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도미니코 수도회	수시	수도원(강북구 삼양로 139나길 16-8)	010-5075-3513 권성환 신부
사랑의 씨앗 수녀회	4월 19일(주일) 14시~17시	카라의 돌(전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	010-5528-3217
살레시오회	수시	수도원(대림동)	010-6221-3520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개별적 협의	수녀원(미아동)	010-5604-1882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 사랑의 딸회	4월 18일(토) 14시~17시	수녀원(경기도 군포)	010-4889-1830
성심의 프란치스코 수녀회	수시	서울 수녀원	010-8563-6875
예수회	4월 18일(토) 15시	예수회 관구본부(마포구)	010-2876-1540(vocation@jesuit.kr)
작은예수수도회	수시	수도원(군자동)	010-8920-2111
천주교서울국제선교회	수시	선교회	010-2749-4596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4월 18일(토) 14시	수도원(서울 개화동)	010-3800-1579
한국순교복자빨마수녀회	수시	전화 상담 후 결정	010-9199-4995
한국성모의자매수녀회	수시	본원(경북 칠곡 동명), 계산서원(대구)	010-3265-6219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신간  
**하느님을 잊은  
 그대에게**

파울 M. 쫄레너 지음  
 생활성서사 | 248쪽 | 1만8천원  
 문의: 02)945-5987

현대 사회의 위기 속에서 하느님의 의미를 다시 묻도록 이끄는 신학적 성찰서이다. 과학과 현대 사상의 도전 안에서 ‘하느님 없이도 세상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정직하게 마주하도록 돕는다. 인간과 세계 안에서 여전히 의미를 지니는 하느님의 사랑과 열정을 새롭게 발견하도록 안내한다.



신간  
**기해·병오박해  
 자료집**

원재연 역주  
 순교자헌양위원회 | 923쪽 | 9만원  
 문의: 02)2269-0413

교구 순교자헌양위원회가 1925년 기해·병오박해 순교자 79위 시복 100주년을 기념하여 출간한 총서이다. 이 책은 그저 경건한 전기가 아니라 국가 공문서 속에 남아있는 순교의 흔적을 집대성한 역사자료이다. 특히 박해를 주도했던 조선 관료들이 남긴 기록을 통해 순교 사건을 살펴봄으로써 순교자들의 신앙과 용기가 더욱 생생하게 드러나도록 하였다.



신간  
**유산을 애도하며**

지나.브루스 하네만 지음  
 생명위원회 | 63쪽 | 비매품(자발적 후원금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문의: 02)727-2350

유산은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가장 잘 이해되지 않는 상실이다. 이 책은 기도문의 형식으로 단순한 위로를 넘어 상실의 고통을 기도를 통해 승화시키고 극복할 수 있도록 치유와 회복의 길을 제시한다. 또한 슬픔과 죄책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내면의 상처를 하느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을 수 있도록 돕고, 잃어버린 생명과의 영적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게 한다.



신간  
**상실을 품은 가족**

지나.브루스 하네만 지음  
 생명위원회 | 182쪽 | 비매품(자발적 후원금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문의: 02)727-2350

가족이라는 특별한 관계 안에서 유산의 슬픔을 이해하고, 상처 입은 마음이 치유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부모, 형제, 조부모 등 가족 구성원의 애도 방식을 소개하며 서로 다른 슬픔을 존중하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돕는다. ‘상실 이후의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의미를 찾으며, 애도의 과정을 다시 세워가는 여정을 제시하는 영적 동반서이다.



음악회  
**선우경식 선종18주기  
 추모 및 감사 음악회  
 제20회 요셉의원 자선음악회  
 ‘노래의 날개 위에’**

일시: 4월 13일(월) 오후 7시 30분  
 장소: 주교좌 명동대성당 대성전  
 전석 무료(자유석)  
 문의: 02)3668-8426 요셉나눔재단법인

제20회 요셉의원 자선음악회 <노래의 날개 위에>가 4월 13일(월) 명동대성당에서 열린다. 고(故) 선우경식 원장 선종 18주기를 맞아 마련된 추모와 감사의 음악회로, 가난한 이들에게 희망의 선율을 전하고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이다. 후원자와 봉사자, 교우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음악회  
**국립국악관현악단 어린이음악회  
 신나락 만나락**

일시: 4월 22일~5월 5일 (화·수·목·금) 11시, (토·주일) 14시 / (5월 5일 어린이날) 11시·15시 / 문의: 02)2280-4114  
 장소: 국립극장 하늘극장 / 입장료: 전석 3만원  
**전화 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모바일의 본 안내문 지참시 4명 30% 할인**

어린이 음악극 <신나락 만나락>이 4월 22일부터 5월 5일까지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공연된다. 제주 설대할망 설화를 소재로 어린이의 시선에 맞춰 더욱 친절하고 풍성하게 선보이는 작품으로, 노래하는 아이 ‘선율’이가 엄마를 되찾기 위해 전설 속 거인신을 찾아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를 담았다.

◎ 명동대성당 미사안내봉사단 단원 모집

·활 동 : 토요일 오후 6시 미사, 주일 오후 6시 미사  
·자격조건 : 천주교 세례 받은 신자  
·제출서류 : 입단 신청서, 교적증명서 <밀봉 요망>  
·문 의 : ☎ 010-5894-9943 (문자)  
이메일(samlomsoo@gmail.com)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성당소식→단체모집 참고

◎ 명동대성당 장년봉사부와 봉사 회원 모집

※모집조건 -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은 만 45세~65세 남성 교우  
※봉사내용 - 명동성당 사목회 주요 봉사  
※제출서류 - 교적증명서 <밀봉 요망>  
·종현회 : 매일 넷째주 일요일 오후 5시 화합 ☎ 010-2838-6401  
·대건회 : 짝수달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화합 ☎ 010-9011-8990  
·범우회 : 매일 둘째주 목요일 오후 7시 화합 ☎ 010-6340-3528  
·광암회 : 매일 셋째주 일요일 오후 5시 화합 ☎ 010-8337-6972  
·만천회 : 매일 셋째주 수요일 오후 7시 화합 ☎ 010-8611-4097  
·하상회 : 매일 셋째주 토요일 오후 7시 화합 ☎ 010-3687-2322

◎ 명동대성당 장년·청장년 레지오 마리아 단원 모집

·공통사항 : 천주교 세례 받은 남녀 (교적 본당 무관)  
·입단문의 -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 꾸리아  
(☎ 46~70세 장년)  
단장 ☎ 010-2431-3004  
- 천주의 성모 마리아 꾸리아  
(☎ 46~70세 장년)  
단장 ☎ 010-2408-2882  
- 평화의 모후 꾸리아 (☎ 35~45세 청장년)  
단장 ☎ 010-5054-6495 (문자 요망)

◎ 무지카사크라 소년합창단 「주님과 음악 사이에」 연주회

·일시/장소 : 매일 첫째 주일 오후 3시 30분 / 명동대성당 대성전  
※무료 공연으로 누구나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 무지카사크라 소년합창단 단원 모집  
·대상 : 세례자 또는 예비세례자(1년 이내 세례예정)  
초 2~5학년 남아

문의 및 지원 : QR코드 접속 

◆ 거룩한 성전 출입에 따른 권고사항 ◆

경건한 전례와 기도 공간인 성전출입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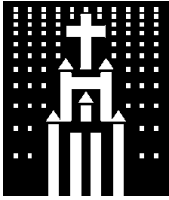
- 음식물 및 커피, 음료수 반입금지
- 반려동물 동반 금지 (경내 전체)
- 예의를 갖춘 복장
- 큰 목소리 대화 및 전화통화 금지
- 미사 중 촬영 금지

▣ 교무금 은행 납부 시 유의사항 ▣

(교무금을 은행에서 송금 또는 자동이체하실 경우)

현재 본인 확인이 되지 않아 처리하지 못한 교무금 (감사헌금·기타헌금) 입금액이 다수 있습니다. 교무금 (감사헌금·기타헌금)을 은행을 통해 납부하신 적이 있거나 매일 자동이체 중이신 명동 교적 신자분들께서는 성당 사무실로 전화 주시거나 내방 가능하신 분들은 납부하신 내역에 이상이 없는지 사무실로 오셔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1. 동명이인이 많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서는 송금인의 성명과 더불어 생년월일(6자리)까지 기재 하여 송금(자동이체)하시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2. 또는 교무금 통장 앞면에 있는 신자 개인번호를 기재해 주셔도 납부자 확인에 큰 도움이 됩니다.
3. 자동이체 설정은 25일 이전까지 부탁드립니다. 은행 납입분은 본당으로 내역이 넘어 오는 데 주말이 끼 있을 경우 약 2~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예를 들어 2월 교무금을 28일에 송금 (자동이체)하실 경우 3월분 교무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4. 감사헌금을 포함하여, 성당 사무실에서 책정하신 교무금 납입금액과 송금(이체)액이 다른 경우 필히 성당 사무실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774-1784(대)  
753-1784(FAX)  
본당 연령회  
010-6375-1784

# 진주교시흥대학교구 주교좌명동대성당

주 임 조성풍(아우구스티노) 신부  
수석부주임 나창식(안드레아) 신부  
청년문화예술 나연수(안토니오) 신부  
전례·성음악 유영주(세례자요한) 신부  
선교·교육 문재현(바오로) 신부  
주일학교신앙교육 이승규(토마스) 신부  
외국인전담사목 이사악 세베로 신부  
주교좌성음악감독 최호영(사도요한) 신부

미사 성가	입당 : 132	봉헌 : 217, 220, 215	성체 : 182, 164, 498	파견 : 135
-------	----------	--------------------	--------------------	----------

### 《 축 세례 》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새 영세자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도록 많은 기도 바랍니다.

- 세례 예식 미사 : 4/12(일) 13시 30분
- 본 미사는 새 영세자와 대부모 가족들에 한해 입장 가능합니다.

### —하느님의 종, 바보 김수환 추기경—

교회의 현실 참여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에 기초한다. 교회는 세상 안에, 세상을 위하여, 즉 인류 구원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에 열려 있는 교회라 되어야 한다.

(「추기경 김수환 이야기」 中)

하느님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요? 교회는 혼자 또는 끼리끼리만 잘 사는 것이 아닌, 모든 이들이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 **연령회 월례회의** : 4/12(일) 오전 11시 소성당

### ● 새 영세자 첫 고 해

·일시/장소 : 4/14(화) 오후 7시 30분 / 소성당

### ● 2026년 명동대성당 영성특강 II - 예수마음기도

- 강사 : Fr. 양기승 사도요한 (예수마음피정의 집 관장)
- 대상 : 가톨릭에서 세례성사를 받은 교우 (교적 확인)
- 접수 : 1주차 5/2(토) 16시부터 강의장소 앞 현장 접수
- 장소 / 시간 : 교구청본관 501호 / 17:00 ~ 18:40  
\* 기도실습 포함

- 기간 : 5/2~6/27 (매주 토요일 총 8회) \* 6/6(토) 휴강
- 접수비 : 30,000 \* 교재비 별도 (개별지참)

☞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권민자 저

※접수비는 강의 시작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후 반환 불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현금영수증 및 기부금영수증 발행 불가)

※시간 · 주제 · 장소 · 강의 순서는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 시작 이후에도 접수 가능하나, 접수비는 동일함.

### ● 본당 사무실 업무시간

요 일	근무시간	비 고
화~금	09:00~19:00	평일(화~금) 점심시간 [12:00-13:00]
토요일		
일요일	07:00~21:00	사무실 폐문

### 《 우리들의 정성 》

- 교무금 (3/30-4/5).....43,208,000
  - 주님 만찬 성목요일 헌금.....2,466,000
  - 주님 수난 성금요일 헌금.....5,290,000
  - 주님 부활 대축일 헌금.....56,394,749
  - 감사헌금 (3/30-4/5).....4,138,000
- 강 아우구스티노 / 김 라파엘 / 김 로사리아 / 김 발렌티노  
김 베아토 / 김 아녜스 / 남 마티아 / 도 카타리나  
박 안젤라 / 서 안드레아 / 심 알베르토 / 오 마리안나  
오 세례자요한 / 이 바오로 / 임 사무엘 / 장 프란체스카  
최 이나시오 / 하 루시아 / 한 에텔부르가 / 황 페트라  
익명(1)

미사 (Mass)	유아 세례 (Baptism of Infants)			주일헌금 봉헌 QR 코드	
	주일미사 (일요일)	07:00, 09:00(English Mass), 10:00(아미쿠스 주일학교와 함께하는 미사), 11:00, 12:00(교중미사), 16:00, 17:00, 18:00, 19:00(청년미사), 21:00			매월 첫째 주일 13:30 ※직전 금요일까지 접수
		교회성사 (Confession)			
	주일미사 (토요일)	18:00(안젤루스 주일학교와 함께하는 미사), 19:00(3545 청년미사)			토-일 10:00 - 20:00 화-금 11:00 - 20:00
		월	07:00, 18:00		
평일미사	화-금	07:00, 18:00, 19:00			
	토	07:00			
성지미사	월-토	10:00			
*모든 미사는 '대성당'에서 봉헌합니다.					
외국인을 위한 교회성사 (Confession for Internationals)					
	Sun.	08:30 - 08:50			
	Sat.	16:00 - 17:00			